

##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

오 용 준\*\* · 윤 갑 식\*\*\*

### Residents' Satisfaction Evaluation of the Naepo New Town Development Plan

Oh, Young-June · Yun, Kap-Sik

Research Fellow, ChungNam Institute · Associate Professor, Dong-A University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d the effect of the development plan of the Naepo New Town. The Naepo New Town is one of the metropolitan administrative cities, differentiated from the existing cities. To overall identify the intention of the plan, the study analyzed the city development plan rather than the district unit plan. According to the result, first, higher satisfaction for living intention and living environment as the Naepo New Town had a difference from the existing new towns. Second, there was the highest satisfaction for parks and green spaces as well as urban disaster prevention, and it was identified that self-sufficiency and building the living environment was important. Third, among the eight specialization plans for the Naepo New Towns, there was a high satisfaction for public design and parks and green spaces and a low satisfaction for education policy and bicycle path. In addition, the techniques to design the crime preventive environment and specialized university were analyzed as the main project. Lastly,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influenced satisfaction for the living environment of the Naepo New Town was infrastructure, followed by land use, parks and green spaces, income, traffic management and occupa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planning elements affecting local residents' satisfaction was empirically conducted by targeting the residents in the Naepo New Town.

**Key Words:** 내포신도시(Naepo New Town), 신도시개발계획(New City Development Plan), 주거만족도(Residential Satisfaction), 계획요소(Planning Elements)

---

\* 이 연구는 충남연구원 2015년도 기본연구과제로 이루어진 것임

\*\* 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연구위원(주저자)

\*\*\* 동아대학교 도시계획공학과 부교수(교신저자)

## 1. 서론

그동안 우리나라의 신도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의 도시와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도시를 지향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조성되어 왔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신도시의 계획의도와 개발계획의 주요내용이 도시공간에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역주민들이 해당 내용을 체감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신도시 개발계획의 의도가 도시공간 속 정주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계획의도가 신도시의 자족성을 확보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등을 거주민이 얼마나 체감하고 더불어 정주환경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향후 개발계획 수립에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신도시에 대한 주거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해당 도시의 일반적인 정주환경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진 반면 신도시 개발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거주민의 인식여부와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더구나 신도시 개발계획 내용에 대한 주거만족도를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는 해당도시의 지구단위계획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기능과 미관을 증진하기 위해 물리적 공간에 구현되는 계획요소만을 제어하기 때문에 신도시의 계획의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구단위계획보다는 종합계획과 정책계획의 성격이 강한 신도시 개발계획을 대상으로 계획내용에 대한 주민의 체감여부와 정주환경 만족도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최근 개발 중인 충청남도의 신도청도시인 내포신도시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충청남도는 대전에 있던 도청을 홍성, 예산지역으로 이전하여 내포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다<sup>1)</sup>. 내포신도시(충남도청 이전신도시)는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 995만 m<sup>2</sup>에 2020년까지 계획인구 10만명(41,670세대)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 중이다. 내포신도시 개발(2007~2020)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2016년은 제3단계(정착단계)로 진입하는 첫 해이다. 2015년 현재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내포신도시의 주민등록인구는 약 8,000명 수준이고, 유동인구 13,000명 이상이 생활하고 있다. 내포신도시는 지속가능한 명품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그린시티(Green City), 탄소중립도시, 5無도시(전신주, 육교, 쓰레기, 담장, 입식광고판 없는 도시), 자전거 천국도시, 공공디자인도시, 교육특화도시, 안전도시, 창조도시 등 8개 특성화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핵심개념을 담은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이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주거만족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신도시와 차별화된 광역행정중심도시인 ‘내포신도

시 개발계획(2006~2020)'상 계획지표에 대해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또한 중요하게 인식하는지 실증 분석하고 나아가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계획부문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내포신도시 개발 3단계(정착단계)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총 4장으로 구성된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신도시 주거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지역인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고,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의 부문별 계획지표를 유형화하여 발굴하는 절차와 방법, 주거만족도 분석방법 등 전체적인 분석의 틀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만족도 및 중요도와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을 실증분석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과 함께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 2. 선행연구 고찰

신도시 계획의 주민만족도 연구는 기존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신도시 주거지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신도시 개발지표에 대한 연구이다. 첫째, 신도시 주민의 주거환경 만족도 연구부문은 오용준외(2015), 장한두(2012), Adriaanse(2007), 박남희외(2004) 등이 주거만족도를 조사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를 분석하였다. 오용준외(2015)는 세종시 첫마을 지구단위계획이 주거만족도에 기여하고 있는지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요인을 규정하고자 하였다. 장한두(2012)는 신도시 주민의 주거만족 영향요인을 주거환경 특성과 거주자 특성,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등 5개 항목군과 주거만족도 간의 상호 비교분석을 통해 평가결과를 도출하였다. Adriaanse(2007)은 가구주택조사에 활용한 18개의 주요조사 항목(주거편의성, 이웃과의 친밀도, 사회적 혼합 등)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주거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주지 만족(Dwelling satisfaction), 사회적 풍토(Social climate), 내부적인 평판(Internal reputation) 등 3가지 부문을 도출하였다. 박남희외(2004)는 분당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환경(건물 노후, 주택 가격 등)과 주변환경(주거환경, 쇼핑시설 등)에 대한 주거환경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둘째, 신도시 개발지표에 관한 연구부문은 한국토지주택연구원(2012), 강동진외(2005) 등이 신도시 개발 및 공공시설 관련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평가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연구

원(2012)은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정주성, 편리성, 쾌적성, 자족성, 건강성 등 5개 부문에서 21개 지표를 발굴하여 도시성을 측정하였다. 강동진외(2005)는 선행연구와 지속 가능한 계획지표 개발의 미국 사례(잭슨빌, 시애틀, 오레곤)에서 신도시 개발원칙을 도출하고, 신도시 개발을 위한 부문(정주성, 환경성, 자족성, 생활문화성)별 지표(총 45개)와 적용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밖에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의 이주저해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와 신도시 조성 이후에 구도시와의 양극화 문제를 다루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류형철(2012), 김준우(2007) 등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등 행정기관이전신도시로 공공기관이 이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주저해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김성준외(2013), 여옥경외(2008)는 신도시 조성 이후에 기존 구도시와의 계층변화 및 양극화 양상을 분석하고 신·구도시 불균형실태에 대한 주민의식을 조사하였다. 초기에는 행정기관이전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뤘으나 점차 신도시와 인근 구도심 간의 도시기능 및 서비스수준의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는 연구로 전환되고 있다.

종합하면, 신도시 주거지에 대한 만족도 연구는 주민요구를 향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는데 실효성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고, 개발지표 관련연구와 혁신도시 연구는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며 조성하는 신도시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신도시 거주자 만족도 연구와 신도시 계획 지표 연구가 별개로 수행되었고, 행정중심도시 개발계획이 실제로 주민들의 만족도 형성에 기여했는지 등의 효과분석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이에 비하여 본 연구는 충남도청 이전신도시의 개발계획을 통해 구현된 내포신도시의 정주환경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측정하고, 앞으로 구현될 계획지표에 대한 중요도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나 연구방법 상에서 차이가 있다.

### 3.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의 개요와 분석의 틀(frame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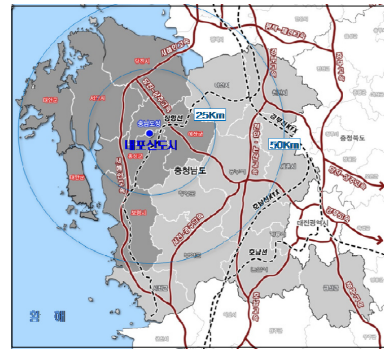
#### 3.1.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내포신도시는 8가지 특성화계획을 중심으로 3단계(조성단계, 발전단계, 정착단계)로 건설되고 있다. 8대 특성화계획은 도시가 숲이 되는 그린시티(Green City), 자연이 에너지가 되는 신재생에너지도시, 자전거 이용이 자유로운 자전거천국도시,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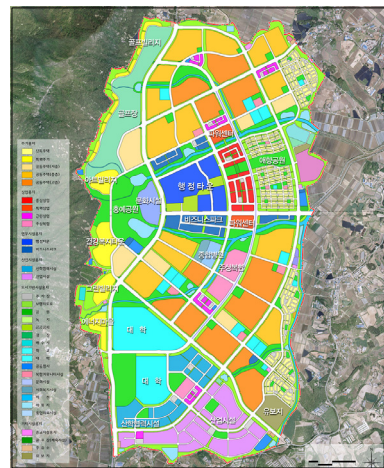
하는 5無도시, 감각적이고 세련된 공공디자인도시, 지역정체성이 살아 숨쉬는 창조도시,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교육특화도시, 일상에 불편함이 없는 안전도시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부문별 계획은 토지이용, 인구수용, 도청 및 이전기관 배치, 산업의 유치업종 및 배치, 교통처리, 환경보전, 교육·문화 및 보건의료·복지시설 설치, 주요공공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 미래형 첨단정보도시 조성 및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문화재 보호, 방재 등 12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포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은 전체용지의 27.5%를 주거용지로 조성하고, 14.4%는 자족용지(상업, 업무, 산업용지)로 개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생산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적 자족용지(산업시설용지)는 전체면적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상 8대 특성화 계획

특성화요소	주요 특징
그린시티 (Green City)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도시 조성, 오지(五指)축 공원·녹지 조성, 도시속 녹지숲 조성 등을 통해 녹지율 50% 이상 확보(토지이용계획상 공원녹지율은 25.0%)
신재생 에너지도시	탄소저감 위한 신·재생 에너지(태양열, 태양광, 지열, RDF 등) 도입, 탄소흡수 위한 입체녹화 및 수순환체계 구축, 에너지 절약형 도시 조성을 통해 에너지 절감효과 37.2% 달성
자전거친국 도시	도시 내 어디든 자전거로 접근할 수 있도록 28개 노선 70.1km 계획(전용자전거도로 8개 노선 22.9km)으로 도시 내 교통수송분담율 30% 이상 달성
5無도시	전신주, 육교, 쓰레기, 담장, 입식광고판 없는 도시
공공디자인 도시	가로시설물, 보도, 광고물 등에 공공디자인을 도입
교육특화 도시	홍성·예산을 교육특구로 지정하여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조성
창조도시	지역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타운 내 안면송을 활용한 숲을 조성하고, 15개 지자체를 상징하는 테마광장 및 테마가로를 조성하며 화합의 문화·역사공원을 조성
안전도시	장애인 및 노약자가 불편을 못 느끼는 무장애 도시, 질병·화재·도난 발생시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U-City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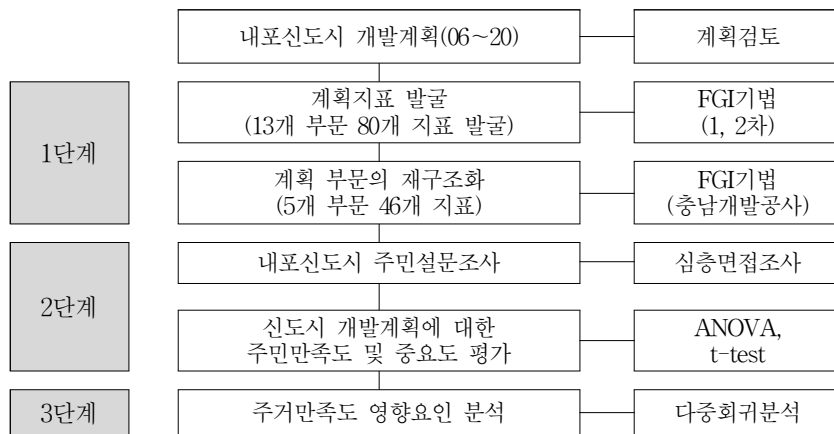
〈그림 1〉 내포신도시 위치



〈그림 2〉 내포신도시 토지이용계획

### 3.2. 분석의 틀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만족도 분석은 <그림 3>과 같이 크게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에서는 내포신도시 개발계획(06~20) 검토를 통해 계획지표를 발굴하고 이를 재구조화하였다. 먼저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의 계획지표는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한 스크리닝 분석(Screening Analysis)기법으로 총 80개 지표를 발굴하였다. 이어서 80개 계획지표 중 유사한 지표는 통합(공원녹지지표 등)하고, 반대로 중요한 특화요소는 하나의 기준(안전도시)도 두 개 지표(범죄예방, 안개예방 등)로 분리했으며, 주민 민원사항은 한국언론재단 구축 종합뉴스DB를 통해 검토하여 연관된 계획지표(전통시장 유치 등)로 반영하는 등 재구조화 과정을 거쳤다. 이와 같은 재구조화 과정은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3차례의 충남개발공사(신도시 시행사)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FGI기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표 3>과 같이 5개 부문 47개 계획지표를 설정하였다. 여기에는 신도시 개발계획상 8대 특성화 계획의도를 담고 있는 지표를 별도 지표로 반영하였다<sup>3)</sup>. 선정된 47개 계획지표중에는 현재 추진중인 지표(28개)도 있지만 향후 추진예정인 지표(19개)도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본 연구에서는 추진중인 지표에 대해서는 주민만족도를 조사하고 추진예정인 지표는 중요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3> 분석절차 및 방법

2단계는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앞 단계에서 도출한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의 5개 부문 47개 계획요소에 대한 주민만족도와 중요도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주민 설문조사를 위해서는 <표 3>에 제시된 계획지표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표현한 설문지 작성이 우선

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별 계획지표를 <표 4>와 같이 계획기준으로 전환하여 설문문항을 구성<sup>4)</sup>했으며 설문형식은 0점에서 5점까지 비율척도를 적용하였다. 설문지는 내포신도시에 대한 거주의향 및 정주민족도, 계획요소에 대한 만족도 및 중요도,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 3부문으로 구성되었다. 주민 설문조사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2015년 11월 1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진행되었고, 신도시 상주인구를 대상으로 216부를 조사하여 미응답 등 유효하지 않는 표본은 제외하고 총 190부의 유효표본을 획득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계획지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주민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5대 계획부문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상의 계획지표

부문 (47개)	사업 추진 중인 계획요소 (28개 계획지표별 만족도)	사업 추진예정인 계획요소 (19개 계획지표별 중요도)
토지 이용 (1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밀도 압축도시 조성</li> <li>· 사회적 혼합 추진</li> <li>· 단계별 공동주택 공급</li> <li>· 도시관문 및 동경축 확보</li> <li>· 5無도시 조성</li> <li>· 공공디자인 도시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인구 설정</li> <li>· 특화형 주거단지 조성</li> <li>· 대중골프장 설치</li> <li>· 특화상업용지 및 파워센터 공급</li> </ul>
자족성 및 정주 환경 (1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타운 조성</li> <li>·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li> <li>· 교육특구 및 에듀타운 조성</li> <li>· 도서관 및 문화의 집 건립</li> <li>· 체육시설 설치(야구장등)</li> <li>· 전통시장 유치(직거래장터 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형 첨단산업단지 조성</li> <li>· 복합대학(Complex Campus) 조성</li> <li>· 종합의료시설 설치</li> <li>· 대형할인점 설치</li> <li>· 복지시설 설치</li> <li>·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li> </ul>
교통 처리 (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간선 및 보조간선도로 설치</li> <li>· 보행자도로 설치</li> <li>· 자전거도로 설치</li> <li>· 대중교통시설 설치</li> <li>· 교통정온화기법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정규모의 주차장 공급</li> <li>· 미래형 교통수단 도입</li> <li>· 첨단교통체계 구축</li> </ul>
공원 녹지 및 방재 (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녹지율(26.3%) 확보</li> <li>· 특성화공원 조성</li> <li>· 우수유출 저감</li> <li>· 입체녹화 유도</li> <li>· 지진피해 예방</li> <li>· 안전도시 구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절약형 도시 조성</li> <li>· 안개 예방</li> <li>· 범죄예방 환경설계기법 도입</li> </ul>
기반 시설 (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적 상수도 공급</li> <li>· 하수처리시설 설치</li> <li>·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li> <li>· 배수지 및 공동구 설치</li> <li>· 지역정보통합센터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업용수 공급</li> <li>· 열병합발전시설 건립</li> <li>· U-서비스 구현</li> </ul>

〈표 4〉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의 계획지표별 계획기준(설문항목)

부문	사업 추진 중인 계획기준	사업 추진예정인 계획기준
토지 이용	Q1. 인구밀도 100인/ha 이하의 압축도시 조성 Q2. 공동주택용지의 21%를 임대주택으로 설정 Q3. 1단계('09~'15)에 공동주택 15,354세대 공급 Q4. 상정가로에 관문 조성, 가로수·건축물·가로시 설물에 의한 통경축 확보 Q5. 5無(전신주, 육교, 쓰레기, 담장, 입식광고판 없는)도시 조성 Q6. 공공디자인구역 관리, 공공시설물에 야간경관 연출 Q7. 토지이용부문에 대한 만족도 종합평가	Q34. 계획인구 10만명 설정 Q35. 차별화된 블록용 단독주택 공급 Q36. 9홀 대중골프장 설치 Q37. 특화상업용지 및 파워센터(슈퍼블록) 공급 Q38. 토지이용부문(추진예정)에 대한 중요도 종합평가
자족성 및 정주 환경	Q8. 행정기관 및 이전대상기관 배치 Q9. 복합커뮤니티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Q10. 교육특구 지정, 초·중·고등학교복합화 및 에듀타운(edu-town) 조성 Q11. 도서관(3개소) 및 복합커뮤니티시설 내 문화의 집(생활아트공방) 건립 Q12. 커뮤니티 중심지역에 체육시설 설치 Q13. 전통시장 유치(직거래장터 개설) Q14. 자족성 및 정주환경부문에 대한 만족도 종합평가	Q39. 신도시 남측 도시형 첨단산업단지 조성 Q40. 신도시 유치산업의 전문화된 특성화대학(Complex Campus) 조성 Q41. 종합병원 배치를 통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 공급 Q42. 대형할인마트와 주변 상권 간 상생보완 Q43. 종합사회복지센터, 복지시설 건립 Q44.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건립 Q45. 자족성 및 정주환경부문(추진예정)에 대한 중요도 종합평가
교통 처리	Q15. 지방도609호선 지하화, 주요 간선도로 입체화를 통한 통과교통 처리 Q16. 보행육교 없는 인간중심으로 조성 Q17. 주간선도로에 자전거도로 설치 Q18. 복합환승센터 및 환승정류장 설치 Q19. 홍예공원~에듀타운 간 차량속도를 감속하는 교통정온화기법 도입 Q20. 교통처리부문에 대한 만족도 종합평가	Q46. 노외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공급 Q47.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및 LRT(노면전차)를 도입 Q48. 교통정보제공 등 첨단교통체계(ITS) 구축 Q49. 교통처리부문(추진예정)에 대한 중요도 종합평가
공원 녹지 및 방재	Q21. 구릉지가 숲이 되는 공원녹지 조성, 간선도로변 완충녹지 및 연결녹지 설치 Q22. 문화공원, 역사공원, 안면송 숲 조성 Q23. 투수성 포장재, 침투시설 설치 Q24. 입체녹화, 주택 지상부 정원화(18.1%) 추진 Q25. 진도8에 저항하는 내진설계, 홍수·산사태로부터 안전한 방재도시 구현 Q26. 교통약자 지원시설 설치, 무장애도시 조성 Q27. 공원녹지 및 방재부문에 대한 만족도 종합평가	Q50. 신재생에너지(태양 및 지열에너지) 활용, 에너지 절약형 도시 조성 Q51. 안개집중발생지역에 2중 신호등 설치 Q52. 범죄예방 환경설계기법(자연감시, 접근통제 등) 도입 Q53. 공원녹지 및 방재부문(추진예정)에 대한 중요도 종합평가
기반 시설	Q28. 상수도보급율 100% 달성 Q29. 생활용수는 하수처리 후 하천유지용수로 활용 Q30. 쓰레기관로수송시스템 구축,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Q31. 배수지 설치, 4.6km 공동구 설치 Q32. 지역정보통합센터(8,250㎡) 설치 Q33. 기반시설부문에 대한 만족도 종합평가	Q54. 도시형 첨단산업단지에 공업용수 공급 Q55. 열병합발전시설(RDF발전 포함) 건립 Q56. 9대 분야 42개 u-서비스 제공 Q57. 기반시설부문에 대한 중요도 종합평가



## 4. 분석결과

### 4.1.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거주의향 및 정주환경 만족도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5>와 같다. 설문 응답자는 30대와 40대가 가장 많았고 응답자의 74.2%가 내포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 주거지는 신도시 주변지역을 포함한 충남과 대전이 전체의 82.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거주형태는 67.4%가 자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은 301-400만원 이하의 구성비가 32.1%로 가장 높고 학력은 대학교 졸업의 구성비가 52.6%로 가장 높은 편이다. 가구주의 직업은 공무원이 37.4%, 기타 62.6%로 공무원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이는 내포신도시가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라는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내포신도시에 대한 거주의향 및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내포신도시와 기성 시가지의 정주환경의 차이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고(3.484) 인식하고 있으며, 내포신도시에 계속 거주할 의향도 중간 이상(3.468)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내포신도시에 거주하도록 권유할 의향도 중간 이상(3.074)으로 나타났으며, 내포신도시의 교육환경 및 생활편의시설 등이 완전히 갖춰져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정주환경에 대해서는 만족하는(3.258)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현재는 개발계획상의 도시모습을 갖추어가고 있는 내포신도시에 대한 정주환경 만족도보다 기성 시가지와의 정주환경 차이 및 거주의향의 지속성이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내포신도시가 기존신도시와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어 거주의향과 정주환경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며 향후 내포신도시의 교육환경 및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질 경우 정주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임을 의미한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내포신도시에 대한 거주의향 및 정주환경에 대한 인식이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나이의 경우 정주환경 만족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며, 30-49세 연령의 정주환경 만족도가 다른 연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 거주 여부와 종전 거주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신도시 거주여부 및 이전 거주지는 내포신도시의 거주의향 및 정주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 형태의 경우 자가(소유)가 전세(임대)보다 거주의향 및 정주환경 만족도가 높고 그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과 학력은 높을수록 또한, 공무원이 기타 직업군보다 거주의향 및 정주환경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성시가지와의 차이, 거주의향의 지속성, 타인 권유정도에 대한 인식은 주택거주 형태, 소득수준, 학력, 직

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정주환경 만족도에 대한 인식은 신도시 거주여부와 이전 거주지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5〉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부수	비율
나이	20-29	31	16.3
	30-39	52	27.4
	40-49	50	26.3
	50-59	45	23.7
	60세 이상	12	6.3
	소계	190	100.0
신도시 거주	미거주	49	25.8
	거주	141	74.2
	소계	190	100.0
종전 거주지	신도시 주변지역	40	28.4
	홍성·예산의 충남지역	37	26.2
	대전광역시	39	27.7
	대전·충남외 지역	25	17.7
	소계	141	100.0
거주 형태	전세(임대)	62	32.6
	자가(소유)	128	67.4
	소계	190	100.0
소득	300만원 이하	42	22.1
	301-400만원 이하	61	32.1
	401-500만원 이하	47	24.7
	500만원 이상	40	21.1
	소계	190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66	34.7
	대학교 졸업	100	52.6
	대학원 이상	24	12.6
	소계	190	100.0
가구주 직업	기타	119	62.6
	공무원	71	37.4
	소계	190	100.0

〈표 6〉 거주 의향 및 정주환경 만족도

구분		기성시가지와 비교	거주의향의 지속성	타인 권유정도	정주환경 만족도
평균		3.484	3.468	3.074	3.258
나이	20-29	3.387	3.323	2.903	3.097
	30-39	3.404	3.538	3.115	3.346
	40-49	3.700	3.620	3.180	3.360
	50-59	3.533	3.444	3.133	3.311
	60이상	3.000	3.000	2.667	2.667
	F값	1.285	1.698	1.346	2.216*
신도시 거주	미거주	3.347	3.429	3.041	3.245
	거주	3.532	3.482	3.085	3.262
	F값	1.082	0.148	0.102	0.016
종전 거주지	신도시 주변지역	3.650	3.650	3.150	3.275
	홍성·예산의 충남지역	3.351	3.405	3.081	3.243
	대전광역시	3.590	3.538	3.179	3.359
	대전·충남외 지역	3.520	3.240	2.840	3.120
	F값	0.566	1.364	0.992	0.422
거주 형태	전세(임대)	3.226	3.258	2.887	3.113
	자가(소유)	3.609	3.570	3.164	3.328
	F값	5.467**	5.924**	4.715**	2.789*
소득	300만원 이하	2.690	2.905	2.476	2.595
	301-400만원 이하	3.721	3.607	3.230	3.328
	401-500만원 이하	3.383	3.426	3.043	3.404
	500만원 이상	4.075	3.900	3.500	3.675
	F값	15.877***	12.284***	13.762***	15.672***
학력	고등학교 졸업	3.121	3.121	2.773	2.939
	대학교 졸업	3.610	3.620	3.220	3.430
	대학원 이상	3.958	3.792	3.292	3.417
	F값	7.263***	9.898***	7.113***	7.858***
가구주 직업	기타	3.218	3.235	2.908	3.017
	공무원	3.930	3.859	3.352	3.662
	F값	21.682***	28.049***	13.522***	30.564***

\*: p&lt;0.1, \*\*: p&lt;0.05, \*\*\*: p&lt;0.01

## 4.2. 계획지표에 대한 주민만족도와 중요도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상의 계획지표를 5대 부문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추진중인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의 5대 부문 중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부문은 공원녹지 및 방재부문(Q27)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교통처리부문(Q20), 기반시설 부문(Q33), 자족성 및 정주환경부문(Q14), 토지이용부문(Q7)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향후 사업 추진예정중인 계획요소에 대해서는 자족성 및 정주환경부문(Q45)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어서 교통처리부문(Q49), 공원녹지 및 방재부문(Q53), 기반시설부문(Q57), 토지이용부문(Q38)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만족하고 있는 계획부문과 향후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는 계획부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재는 새롭게 조성된 공원과 도시기반시설, 교통 등 물리적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만 향후에는 도시전체의 자족성 및 정주환경 형성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5개 모든 부문에 대해서 현재 추진중인 계획지표에 대한 만족도보다 향후 추진될 계획지표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자족성 및 정주환경부문은 만족도와 중요도의 격차가 가장 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토지이용부문과 교통처리부문 역시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민들의 정주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내포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만족도와 중요도의 격차가 큰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세부 계획부문별 현재의 만족도와 향후 중요도가 높은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토지이용부문에서 '5無도시 조성(Q5)'과 '공공디자인구역 관리, 공공시설물에 야간경관 연출(Q6)' 등의 계획기준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향후에는 '계획인구 10만명 설정(Q34)' 계획기준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족성 및 정주환경부문에서는 '도서관 및 복합커뮤니티시설 내 문화의 집 건립(Q11)'과 '행정기관 및 이전대상기관 배치(Q8)' 계획기준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향후에는 '종합병원 배치를 통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공급(Q41)'과 '대형할인마트와 주변 상권 간 상생보완(Q42)' 등의 지표에 대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족성 부문에서는 생산자 서비스보다는 가족단위 이주를 촉진할 수 있는 소비자 서비스(도시핵심시설) 공급전략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교통처리부문에서 '주요 도로를 지하화하고 입체화(Q15)'한 것과 '보행육교가 없는 도시(Q16)'에 대한 만족도가 높는데 비해, 앞으로는 '첨단교통체계 구축(Q48)'과 '주차장 공급(Q46)'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공원녹지 및 방재부문에서는 '특성화 공원 조성(Q22)'과 '공원녹지 확충(Q21)' 등의 계획기

준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향후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기법(Q52)'과 '안개 예방 기법(Q51)'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부문에서는 '하수처리시설 설치(Q29)'과 '지역정보통합센터 설치(Q31)'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향후에는 'u-서비스(Q56) 제공'과 '공업용수 공급(Q54)' 계획기준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계획지표별 만족도와 중요도 분석결과

부문	만족도			중요도		
	설문항목	평균	표준편차	설문항목	평균	표준편차
토지이용	Q1	3.353	0.9354	Q34	3.726	0.8600
	Q2	2.837	1.2170	Q35	3.611	0.8203
	Q3	2.642	1.1447	Q36	3.253	0.9863
	Q4	3.274	0.9644	Q37	3.479	0.9010
	Q5*	3.453	0.9569	Q38	3.526	0.7178
	Q6*	3.453	0.9232			
	Q7	3.184	0.8562			
자족성 및 정주환경	Q8	3.463	0.8075	Q39	3.595	0.7339
	Q9	3.337	0.8681	Q40*	3.963	0.9222
	Q10*	3.358	0.9075	Q41	4.263	0.7377
	Q11	3.484	0.8590	Q42	4.100	0.7314
	Q12	3.426	0.9717	Q43	3.947	0.8083
	Q13	3.426	0.8803	Q44	4.011	0.8164
	Q14	3.347	0.7597	Q45	3.889	0.7226
교통처리	Q15	3.495	0.8591	Q46	3.795	0.7090
	Q16	3.484	0.9185	Q47	3.753	0.7947
	Q17*	3.400	0.9910	Q48	3.816	0.7147
	Q18	3.426	0.9441	Q49	3.805	0.6416
	Q19*	3.458	0.8943			
	Q20	3.426	0.8863			
공원녹지 및 방재	Q21*	3.674	0.9252	Q50*	3.663	0.7849
	Q22*	3.700	0.9312	Q51	3.679	0.7539
	Q23	3.500	0.9244	Q52*	3.905	0.9035
	Q24*	3.611	0.9061	Q53	3.732	0.7026
	Q25	3.558	0.8875			
	Q26*	3.632	0.9378			
	Q27	3.574	0.7984			
기반시설	Q28	3.458	0.8581	Q54	3.542	0.7243
	Q29	3.489	0.8213	Q55*	3.505	0.7542
	Q30	3.353	0.9067	Q56	3.563	0.7859
	Q31	3.458	0.8138	Q57	3.563	0.6775
	Q32	3.489	0.7884			
	Q33	3.426	0.7218			

주: 내포신도시의 8대 특성화 계획 지표

이어서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에 반영된 8대 특성화 계획(그린시티, 탄소중립도시, 5無도시, 자전거 천국도시, 공공디자인도시, 교육특화도시, 안전도시, 창조도시)에 대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 및 중요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토지이용부문에서 특성화계획요소인 '5無도시(Q5)'와 '공공디자인 도시 조성(Q6)'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족성 및 정주환경 부문에서는 '교육특구 지정 및 학교 복합화, 에듀타운 조성(Q10)'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특성화 대학 조성(Q40)'에 대한 중요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포신도시 교육특성화전략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진이 용이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통처리부문에서는 '교통정온화기법(Q19)'과 신도시 전체에 조성이 완료된 '자전거도로(Q17)'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포신도시 홍예공원이 보훈공원으로 성격이 변경되면서 전면도로의 교통정온화기법이 폐지되었고, 자전거도로는 현재 자전거보관소, 공공자전거 서비스 체계 등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원녹지 및 방재부문에서는 특성화 계획지표인 '공원 조성(Q22)', '무장애도시(Q26)', '녹지 조성(Q21)', '입체녹화 및 지붕녹화(Q24)'에 대한 만족도가 모두 높고, '범죄예방형 환경설계기법(Q52)'에 비해 '에너지 절약형 도시(Q50)'에 대한 중요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부문에서는 앞으로 '열병합발전시설 설치(Q55)'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사업이 RPF(Refuse Plastic Fuel, 폐플라스틱 고형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8대 특성화계획에 대한 만족도를 종합해 보면, '5無도시(Q5)', '공공디자인(Q6)', '공원 조성(Q22)', '무장애도시(Q26)'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교육특구 및 학교 복합화(Q10)', '자전거도로 설치(Q17)'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요도의 경우 '특성화대학(Q40)', '범죄예방형 환경설계기법(Q52)'에 대한 중요도가 높고, '에너지절약형 도시(Q50)', '열병합발전시설(Q55)'에 대한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4.3. 정주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본 논문에서는 내포신도시 정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정주만족도의 영향요인은 앞에서 설명한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상의 5대 계획부문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수들이다. 다중회귀분석결과는 아래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회귀모형 전체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는 0.718이고 분산분석에 의한 F 값이 45.467로서 모형 전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있으며 VIF지수로 확인한

다중공선성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개별변수들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면, 5대 계획부문 중에서는 자족성 및 정주환경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4대 부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4대 부문 변수들의 회귀계수가 모두 양의 값으로 나타나 토지이용부문, 교통처리부문, 공원녹지 및 방재부문, 기반시설부문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정주환경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중에서는 소득과 직업유형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공무원 집단일수록 정주환경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5)</sup>.

다음으로 내포신도시 정주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표준계수를 통해 살펴보면, 기반시설 부문이 가장 중요하고 이어서 토지이용부문, 공원녹지 및 방재부문, 소득, 교통처리부문, 직업 순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계획적인 요소를 통해 주민의 정주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부문과 토지이용 부문과 공원녹지 및 방재부문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 내포신도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토지이용부문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주민들의 정주환경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 부문에 대한 세부 계획지표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표 8〉 내포신도시 정주환경 만족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분	비표준 계수		표준계수	t	p-value	공선성 통계		모형의 설명력
	B	표준오차	베타			허용오차	VIF	
(상수)	-0.297	0.226		-1.313	0.191			$R^2$ : 0.718 $F$ : 45.467
토지이용	0.193	0.070	0.197	2.755	0.006***	0.308	3.242	
자족성 및 정주환경	0.110	0.085	0.100	1.292	0.198	0.266	3.760	
교통처리	0.152	0.070	0.161	2.173	0.031**	0.286	3.498	
공원녹지 및 방재	0.188	0.073	0.180	2.575	0.011**	0.325	3.080	
기반시설	0.241	0.086	0.208	2.812	0.005***	0.288	3.471	
나이	0.004	0.004	0.054	1.144	0.254	0.717	1.396	
거주여부	0.056	0.080	0.030	0.705	0.482	0.899	1.113	
주택소유 형태	-0.061	0.082	-0.034	-0.745	0.457	0.745	1.341	
소득	0.132	0.036	0.167	3.701	0.000***	0.777	1.287	
직업	0.144	0.080	0.083	1.798	0.074*	0.733	1.365	

\*:  $p < 0.1$ , \*\*:  $p < 0.05$ , \*\*\*:  $p < 0.01$

## 5. 결 론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조성하는 신도시는 기존 신도시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신도시의 개발계획은 물리적 공간 조성뿐 아니라 행정기관 이전, 자족성 확보, 생활인프라 공급 등의 정책적 요소가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의 계획지표가 정주환경을 조성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는지, 신도시의 8대 특성화 계획지표에 대해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중요하게 인식하는지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내포신도시는 기존 시가지와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어 생활인프라와 소비자 서비스기능이 확충된다면 정주환경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의 5대 부문 중에서 공원녹지 및 방재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교통처리, 기반시설, 자족성 및 정주환경, 토지이용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내포신도시의 8대 특성화계획에 대해 주민들은 5無도시, 공공디자인, 공원 조성, 무장애도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교육특구 및 학교 복합화,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요도의 경우 특성화대학, 범죄예방형 환경설계 기법에 대한 중요도가 높고, 에너지절약형 도시, 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한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내포신도시 정주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족성 및 정주환경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4대 부문(토지이용부문, 교통처리부문, 공원녹지 및 방재부문, 기반시설 부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포신도시 정주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기반시설, 토지이용, 공원녹지 및 방재부분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토지이용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향후 정주환경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토지이용부문의 계획지표에 대한 중점관리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 연구는 도청이전신도시의 개발계획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에 중요시 되는 계획지표가 다른 신도시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결과가 행정중심도시의 정주환경 계획지표라고 일반화하기 어렵다. 좀 더 보편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과 상호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 신도시와 차별화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이 실제로 주민의 거주만족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 실증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정책적인 의미가 있다.

## 주

- 1) 충남도청 이전은 80년 동안 대전에 위치했던 도청이 관할지역의 중심지역으로 되돌아간다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행정기관 이전과 함께 내포신도시 개발로 중심성이 점차 강화되면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지역통합성이 높아질 것이고, 앞으로 내포신도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충남 서북부 지역발전의 파급효과를 낙후된 남부지역으로 확산하는 혁신거점으로써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충청남도는 광역행정 및 지원기능 통합을 위해 총 128개소의 이전대상기관·단체를 유치하고 있다. 유치대상기관 중 2015년 현재 61개 도단위 기관 및 단체가 신도시로 이전하였고, 2017년까지 25개 기관(부지매입 완료)이 추가로 입지할 예정이다
- 2) 내포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으로 ‘내포신도시 개발계획(2006~2020)’과 그에 따른 세부계획인 ‘내포신도시 지구단위계획(변경) 시행지침(2013)’이 있다. 본 연구는 종합계획과 정책계획의 성격이 강하면서 신도시의 계획의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자족성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신도시 개발계획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3) FGI는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 3차례 실시하였으며, 여기에 참여한 전문가는 충남개발공사 2인과 도시계획 및 설계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였다.
- 4) 설문응답자가 계획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삽도를 삽입하거나 구체적인 장소를 예시하는 형태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 5) 직업변수는 다중회귀분석에 더미변수로 처리되었는데 기타직업이 ‘0’, 공무원이 ‘1’로 입력되었다.

## 참 고 문 헌

- 강동진·김현수·서충원. 2005. “지속가능한 신도시개발을 위한 계획지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제17권 제3호, pp.1-30.
- 박남희·김준영. 2004. “분당신도시 거주민의 주거환경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제15권 제6호, pp.27-35.
- 오용준·홍경구. 2015. “세종시 첫마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 대한건축학회, 제31권 제1호, pp.143-150.
- 장한두. 2012. “신도시 주민의 주거만족 영향요인과 주거환경평가”, 대한건축학회, 제28권 제2호, pp.71-80.
- 한국토지주택연구원. 2012. 『수도권 1기 신도시 도시성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표 개발』.
- 한상현·김광식. 1999. “수도권 신도시 주민의 공공시설에 대한 거주후 만족도 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제34권 제6호, pp.41-59.
- Adriaanse, C. C. M. 2007. Measuring residential satisfaction: a residential environmental satisfaction scale(RESS). *Journal of Housing and the Built Environment* , vol.22, no.3, pp. 287-304.

(논문접수일: 2016. 01. 12 / 게재확정일: 2016. 02. 29)



---

※ **오용준(吳壙竣)**은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대학원에서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국토연구원과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현재 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이다. 관심분야는 토지이용정책과 지역개발이며, 주요논문은 “세종시 첫마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2015)”,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활성화사업의 효과분석(2013)”,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도시계획요소에 관한 연구(2012)” 등이 있다(이메일주소: yjuno@cni.re.kr).

※ **윤갑식(尹甲植)**은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대학원에서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동아대학교 도시계획공학과 부교수로 재직중이다. 관심분야는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이며, 주요 논문은 “한국과 일본 서비스업의 구조와 산업연관효과 비교분석(2015)”, “동남권의 지역간 인구이동 특성분석과 지역정책의 함의(2015)”, “인구밀도경사함수를 이용한 우리나라 도시공간구조의 지역별·규모별 변화특성 분석(2013)” 등이 있다(이메일주소: ksyun@donga.ac.kr).

이 면은 공백입니다.